

# 영광군 'e-모빌리티 수출' 날개 단다

### 산업부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40억원 들여 시설·장비 등 설치 대마산단 공동생산 기반 대폭 확충

국내 'e-모빌리티 산업 거점'인 전남 영광군이 관련 산업 수출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 수단을 뜻한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기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앞서 지난 2021년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마산단 내 생산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단에 입주한 e-모빌리티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25년까지 총 40억원을 들여 대마산단에 들어선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영광군이 대마산단에 구축하는 'e-모빌리티 부품 공동 생산 지원센터' 전경.

주요 확충 장비는 용접용 유니버설 지그, 로봇 용접기, 평판형 레이저가공·절곡기 등이다.

또 e-모빌리티 내·외장재와 프레임 부품 가공을 지원하는 중·대형 시설도 구축한다.

최근 산업부는 제4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에서 '소형 e-모빌리티'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출 유망 품목으로 '소형 e-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동남아 주요 국가 수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해 해당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e-모빌리티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 신안 자생 멸종위기 동·식물 만나 보세요

### 7월26일까지 식물뮤지엄 기획전

신안군이 '신안 자생 멸종위기 동·식물' 기획전전을 열고 있다.

오는 7월 26일까지 자은면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신안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소개하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함께 하는 멸종위기종 복원 노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에는 신안새우나초, 나도풍란, 참달팽이

등 가거도, 흥도, 하태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패널, 국립생태원 기증 식물 전시, 멸종위기종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군은 방문객에게 멸종위기종을 이해하고 신안 자생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와 신안의 생물 다양성을 알릴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자생 멸종위기종 전시를 통해 신안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생태 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경찰, 선진 교통 문화도시 도약 캠페인

### 유관 기관·시민 500여명 참여

목포경찰서(서장 김범상)는 목포시(시장 박홍률)·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유관기관 및 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회장 오현석)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5호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주·정차 문화개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방법, 긴급차량 양보 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교통의식 개선을 촉구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지와

홍보 물품을 전달하는 등 가시적·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민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목포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올해 5월 전국 소년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목포경찰서는 선진 교통 문화도시 목표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정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 5개월만에 2만명 다녀갔다

### 16개 테라피실... 힐링 핫플레이스 3인 이상 가족 50·10인 20% 할인

힐링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완도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이 2만명을 돌파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에 5개월 동안 다녀간 인원은 2만 765명으로 집계됐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탈라소플,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스톤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로 구성됐다.

지난 3월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테라피를 제공하고자 개별 욕조에 미역, 다시마 원물을 넣은 물에 입욕하는 '해조류 스파 테라피'와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마스크팩, 스톤 테라피실을 추가했다.

군은 더 많은 치유객 유입을 위해 센터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다.

군민의 경우 평일 50%·주말 30%, 3인 이상 가족은 50%, 전남도민과 10인 이상 단체 방문은 20%, 협약 기관 30%를 할인한다.

재방문객을 위해 60% 할인된 월 이용권도 판매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를 완도해양



완도 해양치유센터 명상풀에서 방문객들이 명상 치유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치유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 확보, 치유 서비스 개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현대삼호 봉사서클 '새희망 한마음' 행사

### 백혈병 환자·가족 초청 온정 나눔

현대삼호 봉사서클이 지역의 백혈병 환자와 가족을 초청해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24번째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HD현대삼호(대표이사 신현대 사장) 봉사서클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은 지난 27일 광주패밀리랜드에서 백혈병 환자와 가족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새희망의 한마당 축제'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 한국소아암 광

주전남부모회 주최로 열렸으며, 현대삼호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놀이기구 탑승, 가족 자유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와 사진작가 변동섭의 지원으로 '캐리커처 그리기'와 페이스페인팅, 메이크업, 가족사진 촬영 등 이벤트도 곁들여졌다.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은 지난 1999년 7월 창립됐다. 현대삼호 임직원 3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매월 환아들에게 치료비와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